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에 대한 연구*

-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lderly of Public Librar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박 옥 화(Ok-Wha Park)**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대전시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 현황 |
| II. 공공도서관에서의 고령자 | IV. 결론 |

초 록

연구의 목적은 대전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공공도서관 이용에서의 특성 및 공공도서관에 대한 만족도, 공공도서관 이용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었다. 조사 결과, 여성 고령자에 비해 남성 고령자가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고령 이용자들의 특성은 60대의 건강하며, 학력이 높고, 생활수준이 중 이상인 것이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자주, 고정적으로 이용하며, 장시간 머무는 것으로, 도서관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고령 이용자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적은 잠재적 이용자, 즉 70대 이상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고 학력과 생활수준이 낮은 고령자, 그리고 여성 고령자가 공공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과제로 밝혀졌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고령자, 고령 이용자 특성, 노인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ho use public librar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ir tendencies in using the library, level of satisfaction about the library and how the library affects their life were also evaluated. The survey revealed there were more man than woman users. And most users being relatively healthy sixties, highly educated and belonging to the middle class were indicated. They have been using the library frequently and regularly for a long time and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 services from librarians and other staffs. Also the public library servic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the life of the elderly. As a result, an effective program for servicing potential visitors who are in poor health, over 70 years old, having lower level of education, living in below standard conditions, and living far from the library were suggested. Elderly women also will be the potential visitors.

Key Words: Public Library, the Elder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 이 논문은 2004년도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한 것임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owpark@cnu.ac.kr)

• 접수일: 2007년 2월 24일 • 최초심사일: 2007년 3월 5일 • 최종심사일: 2007년 3월 22일

I. 서론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0% 늘어난데 반하여 4세 이하 인구는 24% 감소하였다.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9.3%에 도달한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인구 10명 중 1명 정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19년에는 고령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리라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 인구 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서 20%인 초고령사회가 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프랑스가 155년, 미국 88년, 독일 78년, 일본 36년인데 비해, 추정치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26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¹⁾

고령자 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킨다. 우선 의료비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간호 및 수발방법과 시설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정년제의 시행과 연금지급개시연령, 청장년노동인구의 감소와 고령자 고용 등이 문제가 된다. 거기에다 주택 문제, 생활환경 문제도 있다. 65세 이상 인구증가 이전의 사회구조로서는 대응하기 힘든 고령화 문제들이다.

현재 고령사회인 구미 여러 국가들은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고령자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가 예상 밖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 하나하나에 정책적으로 대비하는 데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고령화의 문제는 고령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이다. 공공도서관의 역할도 있다. 고령 이용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고령자서비스란 어떠한 것인지를 고찰하여 실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945년에 총인구의 7%에 다다른 후, 1950년에 이미 이들 문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대책 수립에 착수, 1961년에 제1회 고령화에 관한 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WHCOA)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회의의 핵심 과제는 증대하는 고령자의 의료비였지만, 고령화 문제 일반도 여러 방면에서 심의되었다. 1971년에는 2회에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고령자문제를 미국 사회에 부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성과를 얻게 되었다. 하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구체적으로 모색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자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 온 것이다.²⁾

1)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서울: 통계청, 2005).

2) 高島涼子, "高齢者觀の變容と圖書館," 京都大學生涯教育學·圖書館情報學研究, Vol.1(2002), p.107.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도서관협회가 고령자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와서의 일이다. 동 협회는 1964년에 ‘고령자에 대한 도서관의 책임(The Library’s Responsibility to the Aging)’을 채택했다. 이것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그러니까 1970년, 1971년, 1981년에 개정되었다. 1975년에는 ‘고령 인구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an Aging Population)’을 공표하여 고령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기도 했다.³⁾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봉사는 그 어느 것이나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하며 발전하기 마련이고, 그런 추세이다. 총 인구의 10% 가량이 고령자라면 이전과 달리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그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도서관의 고령자에 봉사에 대한 연구(박옥화 1987⁴⁾ 고경희 2002⁵⁾ 김선호 2002⁶⁾ 2004⁷⁾ 진주현 2005⁸⁾)가 수행되어 왔고, 공공도서관의 고령자 봉사에 대한 실천사례가 눈에 띄어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고령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편이다.

고령자를 위한 봉사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봉사에 앞서 봉사 대상자의 요구와 수용능력 등이 먼저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파악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며, 도서관 이용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도서관 이용이 그들의 노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조사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 공공도서관에서의 고령자

UN에서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편의상의 규정일 뿐 몇 살부 터를 노년기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화시켜 규정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그 기준이 다양하다.

그런 기준에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들이 있다. 생물학적으로 노년이나 노화의 기준은 생식능력의 상실, 흰 머리, 신체적 감퇴, 만성적 질병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노화의

3) 高島涼子, “アメリカ合衆國における高齢者への図書館サービス,” 圖書館界, 제3권 제9호(1991. 9), p.138.

4) 박옥화, “공공도서관의 노인봉사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제24권, 제1호(1987), pp.508-522.

5) 고경희, 공공도서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6) 김선호, “공공도서관의 노인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2002. 12), pp.101-123.

7) 김선호, “공공도서관의 노인편의증진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4. 12), pp.167-178.

8) 진주현, 공공도서관 노인 봉사 프로그램의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5.

증후에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기준만으로는 노년의 시작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

심리적으로 개인이 노화했다고 느낄 때를 노년의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노화했다고 느낀다. 또 지혜가 발달하는 시점을 노년의 시작으로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화의 지각 시점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영원히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 기준도 노년의 시작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노년의 사회적 기준으로는 조부모 역할의 시작과 직업에서의 은퇴, 부모의 사망 등이 있으며 혼자서 움직일 수 없을 때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의 시작 시점 또한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 노년기 시작 시점으로 잡는데 한계가 있다.⁹⁾

1987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실시한 500명의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다수는 65세부터를 고령자(senior citizens)라고 생각하고 있었다.¹⁰⁾ 1993년 미국의 조사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퇴직 연령(남: 65세, 여: 60세)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4.4% 였고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가 23.3%, 50/55세를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10.3%, 70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7.4%가 될 정도로 의견이 분분했다¹¹⁾ 이런 저런 이유로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고령자에 대한 연령 규정에는 일반적 기준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했다. 우리나라의 퇴직 연령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빠르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조기 퇴직률이 높은 점에 대한,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통념상 아직도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는 점에 대한 고려에서였다. 이 기준이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인구통계학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 가까운 장래에는 연령 기준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Ⅲ. 대전시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 현황

1. 연구방법

가. 연구 대상

대전시 소재 11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가운데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2006년 12월

9) 장휘숙, 성인심리학(서울 : 박영사, 2006), p.14.

10) Margaret Kendall, "Public Library Services for Older Adults," *Library Review*, Vol.45, No.1(1996), p.16.

11) Penelope Street, "National Provision to the Elderly in Public Libraries : Preliminary Results of a Postal Survey Conducted in 1993," *Library Management*, Vol.15, No.8(1994), p.28.

부터 2007년 1월까지 일주일에 걸쳐 설문지를 배포,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에 응해 준 66명(남성: 53명, 여성: 13명)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남성 67.84(SD=5.624)세, 여성 67.615(SD=5.979)세였다

나. 척도

고령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공공도서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14개 문항,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11개 문항,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갖게 된 느낌을 묻는 5개 문항,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후 변화를 묻는 12개 문항을 포함하는 척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1차로 본 연구자와 대학원생 10여명이 검토하여 선택하였고, 예비 조사를 거쳐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다. 자료 분석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및 소득수준 분포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전체 66명이므로 통계적인 유의도 수준에 의해 결과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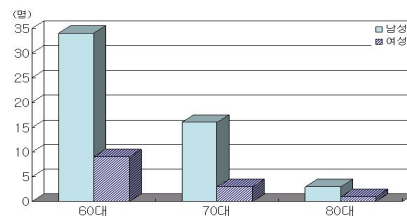
가. 연령 분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연령 분포는 <표 1>과 같이 6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70대 그 다음이 80대로 되어 있다. 조사 결과 고령자 가운데 비교적 신체적인 활동성이 있는 전기 노인(60세부터 69세)¹²⁾이 공공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80 : 20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공도서관을 월등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령 분포

연령	남성	여성	전체
60대	34(64.2%)	9(69.2%)	43(65.2%)
70대	16(30.2%)	3(23.1%)	19(28.8%)
80대	3(5.7%)	1(7.7%)	4(6.1%)
전체	53(100.0%)	13(100.0%)	66(100.0%)



<그림 1>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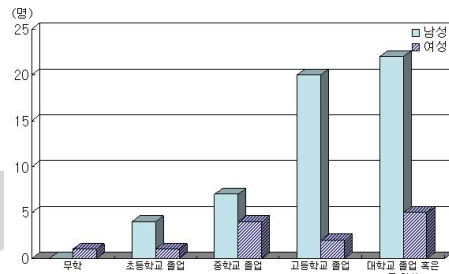
12) 1993년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주관으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각국 책임자 회의에서는 전기노인을 60세부터 69세, 후기노인은 70세 이상으로 구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 학력 분포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들의 학력 분포는 <표 2>와 같다. 대학졸업 이상의 남성이 41.5%, 여성이 38.5%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남성에서는 37.7%의 고등학교 졸업이, 여성에서는 30.8%의 중학교 졸업이 뒤따르고 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학력차를 보이고 있는 수치로서,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데 비해, 여성의 경우 중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현재 60대 이상의 여성이 중학교 졸업이라면 비교적 학력이 높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의 학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 학력 분포

학력	남성	여성	전체
무학	0(0.0%)	1(7.7%)	1(1.5%)
초등학교 졸업	4(7.5%)	1(7.7%)	5(7.6%)
중학교 졸업	7(13.2%)	4(30.8%)	11(16.7%)
고등학교 졸업	20(37.7%)	2(15.4%)	22(33.3%)
대학교 졸업 혹은 그 이상	22(41.5%)	5(38.5%)	27(40.9%)
전체	53(100.0%)	13(100.0%)	6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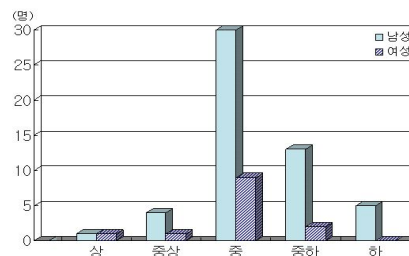
<그림 2> 학력 분포

다. 생활수준과 직업

설문 문항 ‘귀하의 생활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를 통해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들의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이용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생활수준이 ‘중’ 정도라고 여기는 사람이 59.1%로 절반 정도이고, 다음 ‘중하’라고 여기는 사람이 22.7%이다. 남성의 경우 ‘중하’와 ‘하’가 33.9%로 1/3 정도인데 반해 여성은 15.4%에 지나지 않는다. ‘중 이상’ 수준에서 분석하면 격차가 더 심하다. 여성은 84.6%, 남성의 경우 66%이다. 남성들의 경제적 사정이 나쁜 이유는 고령에 의한 은퇴라든가 퇴직과 무관하지 않다. <표 4>를 보면, 고령 이용자 가운데 직업에서 남성은 73.5%가 공무원, 교직 등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표 3> 생활수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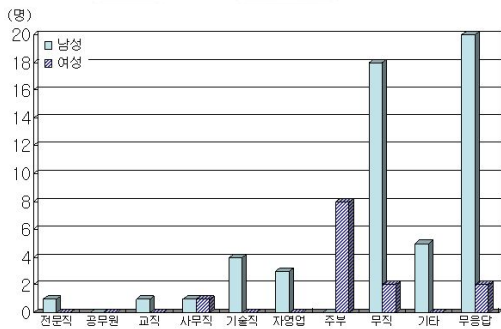
생활수준	남성	여성	전체
상	1(1.9%)	1(7.7%)	2(3.0%)
중상	4(7.5%)	1(7.7%)	5(7.6%)
중	30(56.6%)	9(69.2%)	39(59.1%)
중하	13(24.5%)	2(15.4%)	15(22.7%)
하	5(9.4%)	0(0.0%)	5(7.6%)
전체	53(100.0%)	13(100.0%)	6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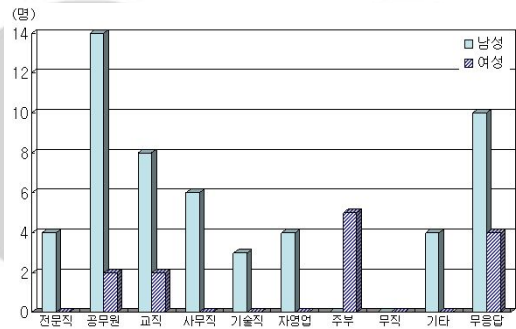
<그림 3> 생활수준 분포

〈표 4〉 직업(현재와 과거)분포

직업	현재			과거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문직	1(1.9%)	0(0.0%)	1(1.5%)	4(7.5%)	0(0.0%)	4(6.1%)
공무원	0(0.0%)	0(0.0%)	0(0.0%)	14(26.4%)	2(15.4%)	16(24.2%)
교직	1(1.9%)	0(0.0%)	1(1.5%)	8(15.1%)	2(15.4%)	10(15.2%)
사무직	1(1.9%)	1(7.7%)	2(3.0%)	6(11.3%)	0(0.0%)	6(9.1%)
기술직	4(7.5%)	0(0.0%)	4(6.1%)	3(5.7%)	0(0.0%)	3(4.5%)
자영업	3(5.7%)	0(0.0%)	3(4.5%)	4(7.5%)	0(0.0%)	4(6.1%)
주부	0(0.0%)	8(61.5%)	8(12.1%)	0(0.0%)	5(38.5%)	5(7.6%)
무직	18(34.0%)	2(15.4%)	20(30.3%)	0(0.0%)	0(0.0%)	0(0.0%)
기타	5(9.4%)	0(0.0%)	5(7.6%)	4(7.5%)	0(0.0%)	4(6.1%)
무응답	20(37.7%)	2(15.4%)	22(33.3%)	10(18.9%)	4(30.8%)	14(21.2%)
전체	53(100.0%)	13(100.0%)	66(100.0%)	53(100.0%)	13(100.0%)	66(100.0%)



〈그림 4〉 현재 직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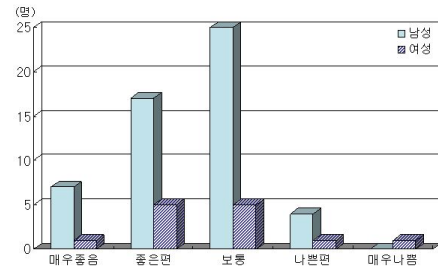
〈그림 5〉 과거 직업 분포

라. 건강상태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을 통해 고령 이용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5%로,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3.3%로, 그리고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2.1%로 나와 있다. 성별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건강상태가 약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전체 고령자 가운데 90%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건강하다고 답한 것이 된다. 달리 말하면, 건강상태가 양호한 고령자들이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된다.

〈표 5〉 건강상태 분포

건강상태	남 성	여 성	전 체
매우 좋다	7(13.2%)	1(7.7%)	8(12.1%)
좋은 편이다	17(32.1%)	5(38.5%)	22(33.3%)
보통이다	25(47.2%)	5(38.5%)	30(45.5%)
나쁜 편이다	4(7.5%)	1(7.7%)	5(7.6%)
매우 나쁜 편이다	0(0.0%)	1(7.7%)	1(1.5%)
전 체	53(100.0%)	13(100.0%)	6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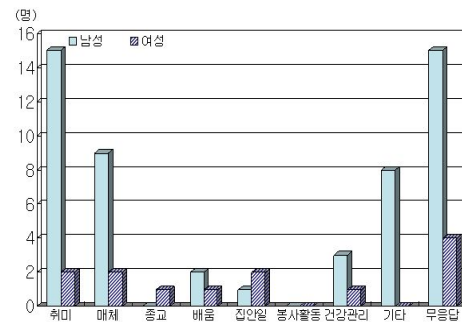
〈그림 6〉 건강상태 분포

마. 고령 이용자들의 일과

‘귀하는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을 통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남녀 구분 없이 장기나 바둑, 등산 등 취미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5.8%이고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시청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6.7%이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시간을 주로 보낸다고 응답한 사람이 6.1%이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하루 일과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시에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집안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은퇴 후 사회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있는 선진국의 고령자들과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 고령자에게도 남은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6〉 일과활동 분포

여가활동	남 성	여 성	전 체
장기, 바둑, 등산 등 취미활동	15(28.3%)	2(15.4%)	17(25.8%)
라디오 청취, TV시청	9(17.0%)	2(15.4%)	11(16.7%)
종교 활동	0(0.0%)	1(7.7%)	1(1.5%)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학교 등	2(3.8%)	1(7.7%)	3(4.5%)
정원 가꾸기, 텃밭 일구기 등 집안 일	1(1.9%)	2(15.4%)	3(4.5%)
봉사활동	0(0.0%)	0(0.0%)	0(0.0%)
건강관리	3(5.7%)	1(7.7%)	4(6.1%)
기 타	8(15.1%)	0(0.0%)	8(12.1%)
무응답	15(28.3%)	4(30.8%)	19(28.8%)
전 체	53(100.0%)	13(100.0%)	66(100.0%)



〈그림 7〉 일과활동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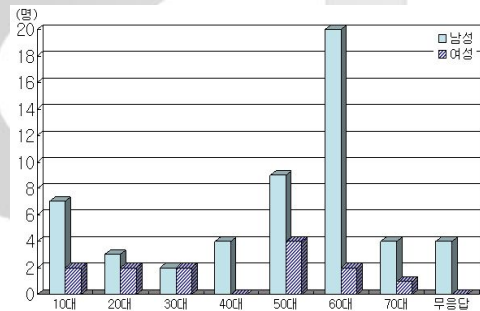
3. 공공도서관 이용 실태조사

가. 공공도서관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

통상적으로 어릴 때의 습관이 평생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고령 이용자들이 언제 공공도서관을 처음으로 이용했을까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문항 '귀하가 처음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시기는 언제입니까?'라는 설문문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남녀 구분 없이 10대에 이미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이 13.6%였고, 20대 7.6%, 30대와 40대 6.1%, 50대 19.7%, 60대 33.3%로 분포되어 있으며, 70대에 처음으로 이용한 사람도 7.6%로 나와 있다. 남성은 10대에 13.2%, 20대에 5.7%가, 여성은 10대에 15.4%, 20대에 15.4%가 처음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대 이전에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분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표 7> 성별에 따른 공공도서관 최초 이용시기에서의 분포

도서관이용 연령	남 성	여 성	전 체
10대	7(13.2%)	2(15.4%)	9(13.6%)
20대	3(5.7%)	2(15.4%)	5(7.6%)
30대	2(3.8%)	2(15.4%)	4(6.1%)
40대	4(7.5%)	0(0.0%)	4(6.1%)
50대	9(17.0%)	4(30.8%)	13(19.7%)
60대	20(37.7%)	2(15.4%)	22(33.3%)
70대	4(7.5%)	1(7.7%)	5(7.6%)
무응답	4(7.5%)	0(0.0%)	4(6.1%)
전 체	53(100.0%)	13(100.0%)	6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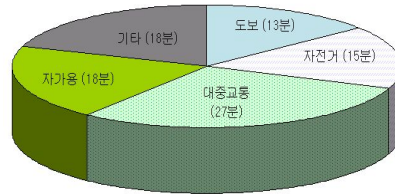
<그림 8> 성별에 따른 공공도서관 최초이용시기 분포

나. 공공도서관에 올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소요시간

고령자들이 공공도서관에 올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면, 도보 47%, 자가용 이용 24%, 대중교통 이용 21%, 자전거 3% 순이다(표 8 참조). 공공도서관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도보로 평균 13분 정도, 자가용으로 평균 18분 정도, 대중교통으로 평균 27분 정도, 자전거로 평균 15분 정도로 나타났다. 이용자 전체를 놓고 볼 때, 공공도서관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하이다. 주로 공공도서관 가까이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표 8〉 공공도서관에 올 때 사용하는 교통수단과 평균시간

교통수단	N	평균 (SD)
도보	31	13,709(10,564)
자전거	2	15,000(0,000)
대중교통	14	27,142(12,513)
자가용	16	18,750(9,574)
기타	3	18,333(15,275)
전 체	66	18,030(11,763)



〈그림 9〉 공공도서관 내관시 교통수단별 평균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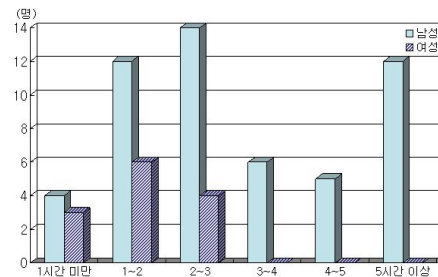
다. 공공도서관에서 머무는 시간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얼마나 머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공공도서관에 오시면 얼마 동안 머무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응답 결과는 〈표 9-1〉과 같다. 전 응답자 가운데 공공도서관에서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람과 2~3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7.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5시간 이상 머문다고 응답한 사람이 18.2%이다. 공공도서관에 와서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합치면 34.9%로서 응답자의 1/3 정도가 된다.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머무는 시간이 긴 것이 확인되고 있다. 80대의 고령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용자 수는 적지만 머무는 시간은 대부분 3시간에서 5시간 이상으로 나와 있다(표 9-2 참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머무는 시간이 짧다. 1~2시간 머무는 사람이 46.2%이고, 2~3시간이 30.8%, 1시간미만이 23.1%이다. 3시간 이상 머무는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표 9-1〉 성별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시간의 분포

도서관이용시간	남 성	여 성	전 체
1시간 미만	4(7.5%)	3(23.1%)	7(10.6%)
1~2시간	12(22.6%)	6(46.2%)	18(27.3%)
2~3시간	14(26.4%)	4(30.8%)	18(27.3%)
3~4시간	6(11.3%)	0(0.0%)	6(9.1%)
4~5시간	5(9.4%)	0(0.0%)	5(7.6%)
5시간 이상	12(22.6%)	0(0.0%)	12(18.2%)
전 체	53(100.0%)	13(100.0%)	66(100.0%)



〈그림 10〉 성별에 따른 도서관 이용시간 분포

〈표 9-2〉 연령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시간의 분포

도서관 이용시간	60대	70대	80대	전체
1시간 미만	6(14.0%)	1(5.3%)	0(0.0%)	7(10.6%)
1~2시간	12(27.9%)	6(31.6%)	0(0.0%)	18(27.3%)
2~3시간	11(25.6%)	6(31.6%)	1(25.0%)	18(27.3%)
3~4시간	5(11.6%)	0(0.0%)	1(25.0%)	6(9.1%)
4~5시간	2(4.7%)	2(10.5%)	1(25.0%)	5(7.6%)
5시간 이상	7(16.3%)	4(21.1%)	1(25.0%)	12(18.2%)
전 체	43(100.0%)	19(100.0%)	4(100.0%)	66(100.0%)

라. 이용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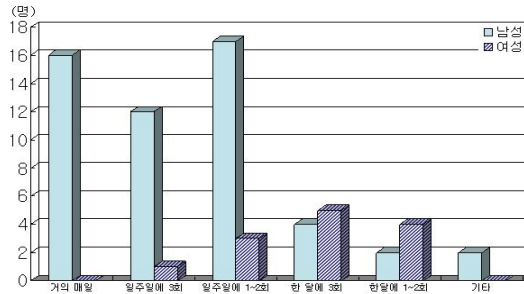
설문 문항 ‘귀하는 한 달에 공공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를 알아보면 〈표 10-1〉과 같다. ‘일주일에 1~2회’가 30.3%로 가장 많고, 다음이 ‘거의 매일’이 24.2%, ‘일주일에 3회 정도’가 19.7%, ‘한 달에 3회 정도’가 13.6%, ‘한 달에 1~2회 정도’가 9.1% 순이다. 일주일에 1~2회 이상(3회 이상 그리고 거의 매일을 합치면)이 74.2%로서 고령자들은 공공도서관을 자주,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2〉와 같이 특히 80대 고령자의 경우 거의 매일 내관하는 이용자가 전체 4명 중 3명이나 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공도서관에 오는 횟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거의 매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남성은 30.3%인데 반해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표 10-1〉 성별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빈도 분포

도서관 이용빈도	남 성	여 성	전 체
거의 매일	16(30.2%)	0(0.0%)	16(24.2%)
일주일에 3회 정도	12(22.6%)	1(7.7%)	13(19.7%)
일주일에 1~2회 정도	17(32.1%)	3(23.1%)	20(30.3%)
한 달에 3회 정도	4(7.5%)	5(38.5%)	9(13.6%)
한 달에 1~2회	2(3.8%)	4(30.8%)	6(9.1%)
기 타	2(3.8%)	0(0.0%)	2(3.0%)
전 체	53(100.0%)	13(100.0%)	66(100.0%)

〈표 10-2〉 연령에 따른 공공도서관 이용빈도의 분포

도서관 이용 빈도	60대	70대	80대	전체
거의 매일	10(23.3%)	3(15.8%)	3(75.0%)	16(24.2%)
일주일에 3회 정도	6(14.0%)	7(36.8%)	0(0.0%)	13(19.7%)
일주일에 1~2회 정도	13(30.2%)	7(36.8%)	0(0.0%)	20(30.3%)
한 달에 3회 정도	6(14.0%)	2(10.5%)	1(25.0%)	9(13.6%)
한 달에 1~2회	6(14.0%)	0(0.0%)	0(0.0%)	6(9.1%)
기 타	2(4.7%)	0(0.0%)	0(0.0%)	2(3.0%)
전 체	43(100.0%)	19(100.0%)	4(100.0%)	6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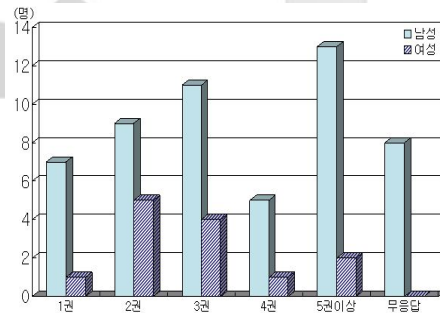
〈그림 11〉 성별에 따른 도서관 이용빈도 분포

마. 자료 대출 수

‘귀하가 공공도서관에서 빌린 자료 수는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라는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공공도서관에서 고령자들이 대출한 월 평균 자료 수를 확인하면 〈표 11〉과 같다. 전 응답자 가운데 한 달에 3권 이상과 5권 이상이 각각 22.7%로 가장 많고 다음이 2권 21.2%, 1권 12.1%, 4권 9.1% 순이다.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보면 여성은 2권 38.5%, 3권 30.8%로 1, 2위이며 남성은 5권 이상 24.5%, 3권 20.8%로 1, 2위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자료를 많이 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성별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료 대출 수의 분포

도서관 대출자료 수	남 성	여 성	전 체
1권	7(13.2%)	1(7.7%)	8(12.1%)
2권	9(17.0%)	5(38.5%)	14(21.2%)
3권	11(20.8%)	4(30.8%)	15(22.7%)
4권	5(9.4%)	1(7.7%)	6(9.1%)
5권 이상	13(24.5%)	2(15.4%)	15(22.7%)
무응답	8(15.1%)	0(0.0%)	8(12.1%)
전 체	53(100.0%)	13(100.0%)	66(100.0%)



〈그림 12〉 성별에 따른 자료 대출수 분포

바.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청하는 곳

설문 문항 ‘귀하는 평소 궁금한 것이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2〉와 같다. 전 이용자 가운데, 가족이나 친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자가 22.7%, 도서관을 찾는다는 응답자가 18.2%, 인터넷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자와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16.7%, 관공서를 찾는다는 응답자가 4.5%로 나타나 있다. 여성은 가족이나 친지 (46.2%)에게 도움을 구하는 비중이 두드러지는 반면 남성은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18.9%) 이 가

족이나 친지(17.0%), 도서관(17.0%) 인터넷(17.0%)에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12〉 성별에 따른 궁금한 것이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곳의 분포

도움을 요청하는 곳	남 성	여 성	전 체
가족이나 친지	9(17.0%)	6(46.2%)	15(22.7%)
도서관	9(17.0%)	3(23.1%)	12(18.2%)
사회복지기관	0(0.0%)	0(0.0%)	0(0.0%)
관공서	2(3.8%)	1(7.7%)	3(4.5%)
인터넷	9(17.0%)	2(15.4%)	11(16.7%)
스스로 해결	10(18.9%)	1(7.7%)	11(16.7%)
기 타	0(0.0%)	0(0.0%)	0(0.0%)
무응답	14(26.4%)	0(0.0%)	14(21.2%)
전 체	53(100.0%)	13(100.0%)	66(100.0%)

사. 공공도서관 이용목적

문항 ‘귀하가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하시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 (복수 응답) 으로 고령자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을 보면 〈표 13〉과 같다. 전 이용자 가운데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비율이 81.8%로 가장 높다. 다음이 책을 빌려본다(54.5%), 그리고 마땅히 시간 보낼 곳이 없어서 공공도서관을 찾는 비율이 30.3%로 3위를 차지한다. 그 밖에 궁금한 것을 찾아보기 위해 (27.3%),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24.2%),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19.7%),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19.7%)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남성과 여성에서 별 차이를 찾을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경독서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찾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 공공도서관에 대한 불만에 대처하는 행동

설문 문항 ‘귀하는 도서관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도서관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불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간다’는 사람이 51.5%에 이른다. 그리고 ‘항의하고 싶지만 참는다’가 10.6%, ‘도서관 직원에게 항의한다’가 9.1%,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가 4.5%, ‘상급기관에 항의한다’가 3.0%이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불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에서 여성 69.2%로 남성 47.2%에 월등 앞서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13〉 공공도서관 이용목적의 분포

이용목적	남 성	여 성	전 체
신문이나 잡지를 본다	44(83.0%)	10(76.0%)	54(81.8%)
책을 빌려본다	26(49.1%)	10(76.9%)	36(54.5%)
행정자료를 이용한다	12(22.6%)	0(0.0%)	12(18.2%)
궁금한 것을 조사한다	17(32.1%)	1(7.7%)	18(27.3%)
인터넷을 이용한다	15(28.3%)	1(7.7%)	16(24.2%)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0(18.9%)	3(23.1%)	13(19.7%)
자원봉사를 한다.	4(7.5%)	0(0.0%)	4(6.1%)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다.	3(5.7%)	0(0.0%)	3(4.5%)
마땅히 시간 보낼 곳이 없기 때문이다.	16(30.2%)	4(40.8%)	20(30.3%)
친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12(22.6%)	1(7.7%)	13(19.7%)
기 타	2(3.8%)	2(15.4%)	4(6.1%)

〈표 14〉 성별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대한 불만 대처 방법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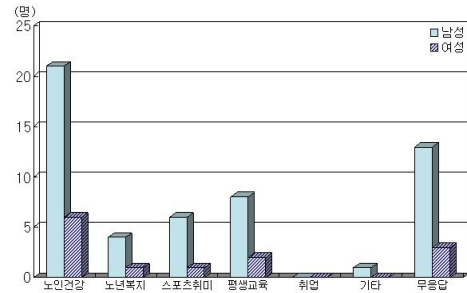
불만사항 해결방법	남 성	여 성	전 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다	25(47.2%)	9(69.2%)	34(51.5%)
항의하고 싶지만 참는다	6(11.3%)	1(7.7%)	7(10.6%)
도서관 직원에게 항의한다	5(9.4%)	1(7.7%)	6(9.1%)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2(3.8%)	1(7.7%)	3(4.5%)
상급기관에 직접 항의한다	2(3.8%)	0(0.0%)	2(3.0%)
도서관 이용을 중단한다	0(0.0%)	0(0.0%)	0(0.0%)
기 타	4(7.5%)	1(7.7%)	5(7.6%)
무응답	9(17.0%)	0(0.0%)	9(13.6%)
전 체	53(100.0%)	13(100.0%)	66(100.0%)

자. 관심 분야

설문 문항 ‘귀하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에 대해 〈표 15〉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노년건강에 관심을 보이는 응답자가 40.9%로 가장 많고, 평생교육 15.2%, 스포츠·취미 10.6%, 노년복지 7.6% 순으로 되어 있다

〈표 15〉 성별에 따른 관심분야에서의 분포

관심분야	남 성	여 성	전 체
노년건강	21(39.6%)	6(46.2%)	27(40.9%)
노년복지	4(7.5%)	1(7.7%)	5(7.6%)
스포츠·취미	6(11.3%)	1(7.7%)	7(10.6%)
평생교육	8(15.1%)	2(15.4%)	10(15.2%)
취 업	0(0.0%)	0(0.0%)	0(0.0%)
기 타	1(1.9%)	0(0.0%)	1(1.5%)
무응답	13(24.5%)	3(23.1%)	16(24.2%)
전 체	53(100.0%)	13(100.0%)	66(100.0%)



〈그림 13〉 성별에 따른 관심분야 분포

4. 공공도서관에 대한 만족정도

설문 문항 ‘귀하가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직원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 해 주십시오’를 통해 고령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그 대답은 〈표 16〉과 같다.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다(48.5%), 매우 그렇다(21.2%)로 높게 나타난다. 만족도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된다. 만족 내용에서는 조명시설(63.7%), 자료검색(57.6%), 안내표지(47.0%), 출입(45.4%) 순으로 나타나 있다.

〈표 16〉 공공도서관에 대한 만족정도의 분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 출입이 편하다(계단 오르키 등).	5(7.6%)	5(7.6%)	23(34.8%)	23(34.8%)	7(10.6%)	3(4.5%)	66(100.0%)
2. 고령자를 위한 배려(돋보기, 확대경 등)가 있다.	10(15.2%)	18(27.3%)	16(24.2%)	15(22.7%)	1(1.5%)	6(9.1%)	66(100.0%)
3. 안내표지의 글씨 크기가 적당 하고 선명하다.	0(0.0%)	5(7.6%)	22(33.3%)	25(37.9%)	6(9.1%)	8(12.1%)	66(100.0%)
4. 조명이 밝아서 독서하기에 좋다.	1(1.5%)	1(1.5%)	8(12.1%)	38(57.6%)	4(6.1%)	14(21.2%)	66(100.0%)
5.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2(3.0%)	5(7.6%)	17(25.8%)	31(47.0%)	7(10.6%)	4(6.1%)	66(100.0%)
6. 큰활자로 된 책들이 있다.	3(4.5%)	17(25.8%)	25(37.9%)	12(18.2%)	2(3.0%)	7(10.6%)	66(100.0%)
7. 고령자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다.	3(4.5%)	15(22.7%)	31(47.0%)	12(18.2%)	1(1.5%)	4(6.1%)	66(100.0%)
8. 고령자를 위한 열람실이 있다.	16(24.2%)	24(36.4%)	8(12.1%)	7(10.6%)	6(9.1%)	5(7.6%)	66(100.0%)
9.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12(18.2%)	32(48.5%)	11(16.7%)	5(7.6%)	2(3.0%)	4(6.1%)	66(100.0%)
10. 사서와 직원은 고령자에게 잘 해 주려고 한다.	1(1.5%)	2(3.0%)	14(21.2%)	32(48.5%)	14(21.2%)	3(4.5%)	66(100.0%)
11. 식당(메뉴, 가격, 위생)이 만족스럽다.	8(12.1%)	6(9.1%)	28(42.4%)	8(12.1%)	9(13.6%)	7(10.6%)	66(100.0%)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부족이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합하면 무려 66.6%나 된다. 다음으로 전용 열람실 미비에 대한 불만족 60.6%, 돈보기와 확대기 부족에 대한 불만족 42.5%, 큰활자본의 부족에 대한 불만족 30.3%로서 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난다.

고령자를 위한 자료(47.0%)와 식당(42.4%)에 대한 만족도는 다수가 보통이상이라고 답하고 있다.

5.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의 느낌

‘귀하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갖게 된 느낌으로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 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7>과 같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고령자들은 ‘어떤 곳보다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에 그렇다(63.6%), 매우 그렇다(27.3%)고 응답하고 있다. 또 ‘가능한 한 계속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다’에 그렇다(60.6%), 매우 그렇다(27.3%)고 응답하고 있으며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권하고 싶다’에 그렇다(62.1%), 매우 그렇다(21.2%), ‘도서관 이용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어 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에 그렇다(68.2%), 매우 그렇다(18.2%)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만족(행복감)을 느끼고 있다’에서는 그렇다(63.6%), 매우 그렇다(12.1%)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5개 문항에 걸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6. 공공도서관 이용 후 변화

‘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후 귀하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 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으로 고령자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부터 그들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18>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긍정적인 문항에 대한 순위를 정하면 다음과 같다.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84.9%)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68.2%)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66.7%) ‘나 자신에게 만족하게 되었다’(66.6%) ‘인생을 즐기게 되었다’(63.6%) ‘삶에 활력이 생겼다’(60.6%) ‘내 삶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56.0%).

〈표 17〉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의 느낌정도의 분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어 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1.5%)	1(1.5%)	7(10.6%)	45(68.2%)	12(18.2%)	0(0.0%)	66(100.0%)
2. 어떤 곳 보다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가를 의미있게 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1.5%)	0(0.0%)	2(3.0%)	42(63.6%)	18(27.3%)	3(4.5%)	66(100.0%)
3. 만족(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1(1.5%)	2(3.0%)	8(12.1%)	42(63.6%)	8(12.1%)	5(7.6%)	66(100.0%)
4.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권하고 싶다.	1(1.5%)	0(0.0%)	6(9.1%)	41(62.1%)	14(21.2%)	4(6.1%)	66(100.0%)
5. 가능한한 계속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다.	1(1.5%)	0(0.0%)	4(6.1%)	40(60.6%)	18(27.3%)	3(4.5%)	66(100.0%)

〈표 18〉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정도의 분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1.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1(1.5%)	0(0.0%)	18(27.3%)	34(51.5%)	8(12.1%)	5(7.6%)	66(100.0%)
2. 삶에 활력이 생겼다.	1(1.5%)	0(0.0%)	19(28.8%)	35(53.0%)	5(7.6%)	6(9.1%)	66(100.0%)
3.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1(1.5%)	1(1.5%)	14(21.2%)	38(57.6%)	7(10.6%)	5(7.6%)	66(100.0%)
4. 나 자신에게 만족하게 되었다.	1(1.5%)	0(0.0%)	15(22.7%)	36(54.5%)	8(12.1%)	6(9.1%)	66(100.0%)
5. 내 삶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1(1.5%)	1(1.5%)	20(30.3%)	29(43.9%)	8(12.1%)	7(10.6%)	66(100.0%)
6. 나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1(1.5%)	0(0.0%)	9(13.6%)	44(66.7%)	12(18.2%)	0(0.0%)	66(100.0%)
7.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3.0%)	3(4.5%)	22(33.3%)	30(45.5%)	3(4.5%)	6(9.1%)	66(100.0%)
8. 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1.5%)	3(4.5%)	23(34.8%)	29(43.9%)	3(4.5%)	7(10.6%)	66(100.0%)
9. 주위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 존경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1.5%)	8(12.1%)	28(42.4%)	22(33.3%)	0(0.0%)	7(10.6%)	66(100.0%)
10.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1(1.5%)	3(4.5%)	14(21.2%)	37(56.1%)	7(10.6%)	4(6.1%)	66(100.0%)
11. 도서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8(12.1%)	12(18.2%)	21(31.8%)	22(33.3%)	3(4.5%)	0(0.0%)	66(100.0%)
12. 신체적으로 건강해졌다.	2(3.0%)	6(9.1%)	30(45.5%)	18(27.3%)	4(6.1%)	6(9.1%)	66(100.0%)

IV. 결론

대전시 11개 공공도서관의 고령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60대 이용자가 가장 많고, 여성에 비해 남성 이용자가 월등히 많다.

고령자 중 비교적 신체적으로 활동성이 있는 전기 고령자가 보다 활발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고령 여성들이 도서관을 덜 이용하는 것은 젊은 시절부터 도서관을 이용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후에도 여성들은 친구와의 모임이나 가정에서의 할 일 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학력이 높다.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의 학력이 높다. 남녀 모두 대학졸업 이상이 그 이하 학력자들보다 많다. 현재 60대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상, 여성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비교적 학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장년층이 은퇴하게 되면 그들의 학력은 현재 60대 이상 보다 고학력층이 두터워지게 된다. 그러할 경우 미래의 공공도서관의 고령자 이용자는 지금보다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금부터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3. 생활수준이 중 이상이며, 특히 여성의 생활수준이 높다.

공공도서관 고령 이용자 가운데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69.7%, 남성은 66%, 여성은 84.6%이다. 퇴직이나 은퇴로 인해 고령자들은 새로운 '가난뱅이'가 된다.¹³⁾ 그러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은 비교적 생활에 여유가 있는 층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서 특히 두드러진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들은 공공도서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공도서관이란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고령자들이 찾아가기에는 용이하지가 않은 것이다.

4. 건강 상태가 좋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 이용자들은 대체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에 이르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령자들 가운데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고령자들이 도서관을 가까이 하기에는 장애가 너무 많다. 고령화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개선하여 내관이 곤란한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도서관이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은퇴 이후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를 알아본 결과 50대 이후 처음으로 이용한 사람이 2/3 정도나 된다. 현재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의 어린 시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13) 박옥화, "공공도서관의 노인봉사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제24권 제1호(1987), p.510.

시설과 환경의 열악함이나 수직 열세를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은 어릴 때부터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 즉 퇴직이나 은퇴 후부터 공공도서관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공공도서관 이용자로서 고령자의 증가가 뚜렷하지 못한 이유를 어릴 때부터 도서관을 이용해보지 않은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6. 공공도서관까지 도보로 오는 고령자가 많다.

공공도서관에 오는 고령자들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자들보다 도보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고 있었다. 비교적 공공도서관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공공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 먼 거리에 사는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 이용에 장애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공공도서관 수가 증가하면 고령 이용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짐작된다. 공공도서관을 증설해야 하는 이유이다.

7. 공공도서관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고 특히 연령이 많을수록 오래 머문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머무는 시간이 짧다.

고령자들은 한번 도서관에 오면 거의 반나절 정도 머무는 고령자가 1/3이 넘는다. 그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편안히 쉴 수 있는 안락한 소파를 마련하고 조명을 밝게 하며 식수대를 마련하는 등 오래 머무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8. 공공도서관을 자주,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80대 고령자의 경우 거의 매일 내관하는 이용자가 전체 4명 중 3명이나 된다. 공공도서관에 오는 것이 하루 일과임을 알 수 있다. 80대 이용자 수가 너무 적어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최고령자들은 일단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되면 거의 매일 이용하는 단골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공도서관에 오는 횟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9. 문제를 해결할 때 비공식 채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녀 모두 도서관보다 가족이나 친지에게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공공도서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불만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불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하다.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니까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오동근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서,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불평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⁴⁾

불만을 제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데는,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결과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도 한 몫하고 있다.¹⁵⁾ 도서관측에서 불만처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고령자들의 불편사항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11. 노년건강에 관심이 많다.

평생교육, 스포츠·취미, 노년복지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관심분야에 대한 순위에서 남녀 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생을 건강하게 보내고 싶은 욕구가 관심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응답자 중에는 취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고령자를 위한 취업박람회도 노년층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반해 현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은 취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생활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고령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만족도에서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있다. 공공도서관 직원들이 고령자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해주는 긍정적인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응답에는 조명시설, 자료검색, 안내표지, 출입에 대한 것이 있다.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 다음으로 전용 열람실, 돋보기와 확대기, 큰활자본 등의 미비나 부족 등에 대한 불만족이 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전 소재 공공도서관 중 고령자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 곳은 안산도서관(노인·장애우실)과 한밭도서관(청록실) 그리고 신탄진도서관(노인·장애우실) 정도다. 고령자 전용 공간을 마련한 곳은 한밭도서관 뿐인 현실에서 공간에 대한 고령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증가하는 고령자 수에 걸맞게 프로그램 개설, 시설, 자료, 공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이 고령자들에게 인

14) 오동근,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불평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2001), p.29.

15) Peter Herson & Ellen Altman, 도서관 서비스 품질관리론, 이은철 역(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1), p.163.

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¹⁶⁾ 고령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13.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고령자들은 어떤 곳보다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도서관을 계속 이용하고 싶어 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도서관 이용을 권하고 싶어 한다. 공공도서관 이용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어 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이다.

14.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게 된 후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고령자들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부터 그들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제시한 문항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에게 만족하게 되었다’ ‘인생을 즐기게 되었다’ ‘삶에 활력이 생겼다’ ‘내 삶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에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고령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상으로서 이것이 바로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할 역할이며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60대의 건강하며 도서관 가까이 거주하고 생활수준이 중 이상이며 고학력의 남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적은 잠재적 이용자, 즉 70대 이상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고 학력과 생활수준이 낮은 고령자, 그리고 원거리의 고령자와 여성 고령자가 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후속 연구에서 모색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대전 지역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표본 수가 적었다. 특히 여성 고령자가 적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 향후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고경희. 공공도서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高島涼子. “アメリカ 合衆國における高齢者への図書館サービス.” 図書館界, 제43권, 제3호(1991. 9), pp.138-149.
- 高島涼子. “高齢者觀の變容と図書館” 京都大學生涯教育學・図書館情報學研究 제 권(2002),
- 16) 白根一夫, “イギリスでみた公共図書館による高齢者サービス.” みんなの図書館, Vol.1(1977), pp.68-72.

pp.107-129.

谷本道子,鈴木香織. “愛知縣における高齢者の公共図書館利用に関する研究.” 名古屋女子大學紀要. Vol.44(1997). pp.23-31.

김선호. “공공도서관의 노인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2002, 12), pp.101-123.

김선호. “공공도서관의 노인편의증진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4, 12), pp.167-178.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서울 : 통계청, 2005.

박옥화. “공공도서관의 노인봉사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제24권, 제1호(1987), pp.508-522.

白根一夫. “イギリスでみた公共図書館による高齢者サービス” みんなの図書館, Vol.1(1977), pp.63-76.

오동근. 2001.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불평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 pp.1-29.

장휘숙. 성인심리학. 서울 : 박영사, 2006.

진주현. 공공도서관 노인 봉사 프로그램의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5.

Hernon, Peter & Altman, Ellen. 도서관 서비스 품질관리론 이은철 역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1.

Kendall, Margaret. “Public library services for older adults.” *Library Review*, Vol.45, No.1 (1996), pp.16-29.

Street, Penelope. “National Provision to the Elderly in Public Libraries ; Preliminary Results of a Postal Survey Conducted in 1993.” *Library Management*, Vol.15, No.8(1994), pp.28-32.